

박찬욱 “차기작 ‘동조자’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 해”

유튜브 채널 ‘일당백’ 나와 차기작 언급해
‘동조자’ 비엠타인 응우옌 작가 소설 원작
“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출연 “1인5역에 딱”

박찬욱 감독이 차기작인 HBO 드라마 ‘동조자’(The Sympathizer)에 대해 “어떤 작품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야 하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 하는데, (이 작품을 선택할 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동조자’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인 비엠타인 응우옌이 2015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출간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남베트남 특수부 소속 군인인 ‘캡틴’이 CIA 공작원에게 발탁돼 CIA를 위해 일하게 되고, 동시에 북베트남이 남쪽에 심은 고정간첩으로서 역할 두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파이 스릴러물이다. 드라마 ‘동조자’는 이 책을

각색해 7개 에피소드로 엮었다.

유튜브 채널 ‘일당백’은 박 감독과 응우옌 작가를 초대해 드라마 ‘동조자’와 소설 ‘동조자’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을 최근 올렸다. 이 대답에서 박 감독은 “이렇게 확실하게 된 데는 이 책이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하는 스파이 스릴러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는 베트남 참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과 똑같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고 이념 갈등을 극심하게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 이야기 같지 않았다”고 했다.

‘동조자’는 스파이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베트남 전쟁을 돌아보는 작품이며, 베트남전에 뛰어난 미국과 미국이 개입이 남긴 상처, 15년 간 이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 떠난 베트남 난민들과 이 과정에서 베

트남계 미국인으로 성장해 이중적 자아를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베트남계 미국인 배우, 베트남 배우들이 주로 출연하는 ‘동조자’엔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해 관심을 모은다. 다우니 주니어가 이 작품에서 1인5역을 맡는다는 점 역시 화제가 됐다. 박 감독은 “(캐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배우 한 명에게 인물 5개가 주어지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였다”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캐스팅 된 게 기뻐”고 했다. 박 감독은 그러면서 “(다우니 주니어가 캐스팅 되면) 그가 있으면 투자가 더 잘 되고, 그가 있으면 예산이 더 올라가고, 제작비가 올라간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감독은 ‘동조자’를 만들면서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였다. 그는 “(촬영하면서) 배우와 크루들에게 마치 좌우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며 “편집 과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동조자’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작품이지만,



아이러니·패러독스·부조리에서 나오는 씬을 하고 날카로운 유머가 있는 작품이라고도 했다. 박 감독은 “원작을 읽고 이 작품을 드라마로 만드는 데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머”라며 “그 유머를 배

우의 연기와 편집의 리듬으로 잘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동조자’는 현재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제니 ‘디 아이돌’, 에피소드 5로 시즌 1 종영

애초 6부작으로 기획…조기종영설도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배우 데뷔작인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이 예정했던 것과 달리 에피소드를 하나 줄여 종영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디 아이돌’은 오는 7월2일 방송되는 5부를 끝으로 시즌1을 끝낸다. 애초 이 시리즈 시즌 1은 6부작으로 기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기종영설도 나온다.

왜 에피소드가 하나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 감독으로 나섰던 에이미 시메츠가 작년에 하차하고, HBO ‘유포리아’의 샘 레빈슨으로 연출이 바뀌면서 에피소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디 아이돌’은 캐나다 출신 팝 슈퍼스타 위켄드(The Weeknd·아벨 테스파에)가 제작했다. 떠오르는 팝 아이돌을 둘러싼 관계들과 음악 산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제니와 위켄드를 비롯 미국과 프랑스 동시 국적의 배우 겸 모델로 할리우드 스타인 조니 램프의 딸 릴리 로즈 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호주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반 등 화려한 출연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니는 ‘디 아이돌’에서 백업 댄서 ‘다이앤’ 역을 맡았다. 출연 시간은 짧지만 무난한 연기를 선보였다. 지난달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열린 ‘디 아이돌’ 시사회 전 레드카펫 행사에도 등장해 큰 환호를 받았다. 다만 도마 위에 오른 작품의 선정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 제니를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애초 시즌제로 기획했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작품성에 대한 혹평과 낮은 시청률로 시즌 2가 무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HBO 측은 “디 아이돌” 두 번째 시즌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설경구 “쌍천만 감독만 믿었다…상업영화 목말라”

설경구 전임 우주센터장 ‘재국’ 역

“쌍천만 감독이니까 시나리오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배우 설경구가 SF영화 ‘더 문’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김용화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문’은 달 탐사를 간 우주 대원 ‘선우’가 사고에 휘말리며 우주에 홀로 고립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설경구는 선우 구출을 돕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을 연기했다. 설경구는 “상업영화에 목말라 있었다”며 “쌍천만 흥행에 성공한 감독이니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싶었고, 시나리오를 볼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신과 함께’ 2부작(2017·2018)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넘겼고, ‘국가대표’(2009)는 800만, ‘미녀는 괴로워’(2006)는 600만 관객을 넘겼다.

설경구는 ‘더 문’ 출연을 결정한 또 다른 이

유로 “미지의 영역”이라는 점을 꼽았다.

“우주를 그리는 영화라서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었고, 흥미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국 역을 소화하기 위해 감량했다고 했다. 설경구는 “엄청난 감량은 아니고, 살이 찐 역할이 아니면 살을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에는 “너무 무섭게 (관리) 하더라”며 “촬영 중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촬영에 들어가자)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타났다”며 “다들 긴장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설경구는 “도경수와 같은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만약 투사로 잡히는 게 있었다면 뼈만 남게 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배우 이병헌, 아파트 주민 대표 됐다…“이게 영화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9일 공개

배우 이병헌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아파트 주민 대표가 된다. 이 작품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은 “이병헌 배우가 한 순간 나오는 표정으로 캐릭터의 사연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영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금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은 외부인에게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주민 대표 ‘영탁’을 연기했다.

영탁은 투철한 희생 정신과 강한 카리스마로 이웃 신임을 얻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날

카로움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병헌은 특유의 치밀한 캐릭터 분석으로 아파트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영탁의 변화를 세심하게 표현한다고 한다.

엄 감독은 “이병헌 배우가 영탁을 표현한다면 훨씬 입체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김승봉 작가가 2014년에 내놓은 웹툰 ‘유포한 왕따’ 2부인 ‘유포한 이웃’이 원작이다. 이병헌 외에 박서준·박보영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엄 감독은 앞서 ‘인투기’(2013) ‘가려진 시간’(2016) 등을 만들었다. 배우 엄태구의 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콘크리트 유포피아’는 오는 8월9일 공개된다.

tvN ‘경이로운 소문’ 포스터 공개



27일 tvN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 측이 메인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속 조병규는 웅의 땅을 부르고 있고, 유준상은 주먹을 앞세우며 파이팅 넘치는 포스를 발산한다. 김세정은 더 강해진 분위기를, 염혜란은 두 주먹을 쥔 채 악귀즈

를 향해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현장 복귀를 선언한 안석환은 녹음하지 않은 전투력을 예고하며 신입 카운터 유인수는 점프력을 과시하며 능력을 선보인다.

반대로 비열한 표정의 강기영은 의문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듯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악한 미소를 띤 김희아라는 살벌한 분위기로 시선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악귀놈들 다 쓸어버지라고’, ‘악해 빠진 놈들, 한순간에 끝내주마’라는 상반된 카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를 예고한다.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는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악귀 사냥꾼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다. 내달 29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한다.

에스파, 첫 印尼 콘서트 성료…“매진·떼창”

대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첫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컨벤션 전시장(ICE BSD)에서 연 ‘싱크 : 하이퍼 라인 인 자카르타’가 매진을 기록했다.

이번 공연에서 에스파는 ‘블랙 맘바’, ‘넥스트 레벨’, ‘새비지’, ‘겔스’ 등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

쳤다. 최근 앨범인 미니 3집 ‘마이 월드’ 타이틀곡 ‘스파이시’와 수록곡 ‘솔티 & 스위트’ 등 신곡도 선보였다.

SM은 “더불어 에스파의 현지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관객들은 공연 내내 팬라이트를 흔들며 (한국어) 떼창은 물론,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컨디션 난조로 활동에 불참했던 지젤이 다시 합세해 4인 완전체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에스파는 오는 7월 29~30일 양일간 태국 방콕 썬더돔(Thunder Dome)에서 월드 투어에 이어간다.